

『默齋日記』 속 傷寒 및 『傷寒論』에 대한 인식 연구

조성환, 김동율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A Study of the Concept of Cold Damage and *The Shanghanlun (Treatise on Cold Damage)* as They Appear in *The Diary of Muk-Jae*

Seong-Hwan Cho, Dong-Ryul Kim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The Diary of Muk-Jae is a historical record that describes many social aspects of the Joseon period in the 16th century. It records many scenes of its author, Lee Mun-Geon, treating patients. This paper uses *The Diary of Muk-Jae* to examin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concept of cold damage and the text of the *Shanghanlun (Treatise on Cold Damage)* in the Joseon period in the 16th century. In *The Diary of Muk-Jae*, cold damage is understood in connection with two categories: 'dangerous disease' and 'disease caused by cold'. *The Diary of Muk-Jae* also presents the *Shanghanlun* not as a work limited to the concept of cold damage, but as a medical text that could be widely used for many different diseases. Thus, *The Diary of Muk-Jae* may represent a point of transition between the perception of cold damage as seen in the *Uibang Yuchui (The Collection of Medical Procedures)* of the 15th century and the *Donguibogam* of the 17th century.

Key words : Korean Medicine, Korean Medical History, *Shanghanlun*, *The Diary of Muk-Jae*, Cold Damage

I. 서론

1445년 간행된 『醫方類聚』는 寒과 관련된 목차를 구성할 때 傷寒과 諸寒을 구분하였으며, 傷寒에 해당하는 傷寒門은 37여권으로 전체 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¹⁾ 그러나 150여년이 지나 간행된 『東醫寶鑑』은 이와 달리 寒門 하나만이 약 1권 분량으로 존재하며, 風暑濕燥火의 연속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 이 두 시기 사이에 傷寒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였으며, 두 시기 사이에 있었던

『默齋日記』의 傷寒기록에서 그 단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하여 진행한 연구이다.

『목재일기』는 1535년 11월부터 1567년 2월까지 默齋李文樞이 쓴 일기로 이문건의 귀양살이²⁾와 분실로 인해서 30여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중간부분이 누락되어서 현재로써는 총 17년 8개월분(10권 분량)만이 남아있다. 『목재일기』는 당시 조선 사회, 생활상에 대한 세세한 묘사가 존재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역사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³⁾ 『목재일기』의 저자인 이문건은 1494 성주 출신의 양반으로 당시 조선에서 승지의 벼슬에 오를 때까지 중앙정부를 거쳐 간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였기에 이문건의 입지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⁴⁾

현재 목재 이문건이 의학적인 지식을 얻은 경로를 구체

접수 ▶ 2019년 05월 11일 수정 ▶ 2019년 05월 28일 채택 ▶ 2019년 05월 27일
교신저자 ▶ 김동율, 충북 제천시 세명로65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203호
Tel : 043-649-1342 Fax : 043-649-1702 E-mail : yule_kim@semyung.ac.kr

- 1) 변정옥, 「『醫方類聚』 傷寒門의 구성 체계와 내용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2) 신규수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귀양은 크게 付處와 安置로 구분되는데 성주출신인 목재 이문건은 자신의 고향인 성주로 유배형을 받았기에 고향으로 유배되는 本鄉安置로 추정된다.
- 3) 이해정,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민정희, 「16世紀 星州地域 兩班家の 巫俗信仰 研究 : 『默齋日記』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외 다수
- 4) 張星德, 「默齋 李文樞의 流配時期 交遊樣相」,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14.

적으로 기록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목재 이문건이 자신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지식을 습득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⁵⁾ 그리고 『목재일기』에서 이문건이 수집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의서가 상당한 수에 이른다는 것으로 보아 의학에 대한 이문건의 관심은 높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⁶⁾ 이문건은 자신의 의학지식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료한 경위를 자세하게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였고, 일부 기록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처방을 내려 醫案과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

본 사료에 대한 이전의 의학적 연구로는 조선시대 의료 실태나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있다. 김성수는 『목재일기』에 존재하는 여러 치료행위들을 위주로 해서 16세기 조선 지방지역에서 이루어진 의료행태에 대해서 연구하였고⁷⁾, 신동원은 『목재일기』뿐만 아니라 이규보, 이항, 정약용 등의 치료사례들을 통해서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으로 나타난 인간적인 고뇌와 의약생활의 사회구조적인 측면 등을 상세하게 저술하였다.⁸⁾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목재일기 속에 존재하는 傷寒 혹은 『傷寒論』과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하여 『목재일기』에서 보이는 傷寒과 『상한론』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16세기 조선의 傷寒 및 『상한론』에 대한 관점을 유추하는 단초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 내 개설되어 있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傷寒이라 표기된 기사들을 수집해서 『목재일기』에서 나타나는 傷寒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傷寒이라는 기사에 사용했던 처방들을 『목재일기』 내에서 다시 검색해서, 해당처방들을 실제로 이문건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들을 활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집하였다. 또한 傷寒의 대표적인 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한론』에 대한 『목재일기』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록 傷寒이

수록되어 있는 기사에 쓰인 처방은 아니지만, 『상한론』의 처방들도 검색해서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목재일기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16C 조선의 『상한론』 판본을 대상으로 비교해야 하며, 당시 조선에서 유행했던 『상한론』의 판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현재까지 가장 흔하게 알려진 송대 교정의서국을 통해서 간행된 송판본 『상한론』을 기준으로 『목재일기』의 치험례들과 비교했음을 밝혀둔다.

II. 본론

1. 傷寒에 대한 『목재일기』 속의 관점

『목재일기』에서 傷寒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을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목재일기』에서 傷寒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4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 『목재일기』에서는 傷寒을 병증과 진단명의 의미로 혼용하고 있다. 우선 傷寒을 병증 서술도구의 의미로써 사용한 경우에는 傷寒과 함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기술하였다. 동반되는 증상들은 너무 같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써놓은 기사들⁹⁾ 뿐만 아니라 당시 환자의 상태, 증상, 심지어는 脈象도 언급하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주는 기사들¹⁰⁾도 존재하였다. 한편 동반증상의 기술 없이 傷寒 단독으로 쓰인 경우에는 병증에 대한 기록보다는 독립적인 진단명의 의미로써 傷寒을 사용하였다. 이는 부차적인 증상들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거나¹¹⁾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을 모두 듣고 나서 이문건이나 다른 사람들이 병명으로 진단한 경우이다.¹²⁾ 이처럼 『목재일기』에서는 傷寒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여타 증상들과 함께 서술해서 질병형태를 표현하거나 傷寒 단독으로 사용해서 병명을 지

5) 김성수. 『『목재일기』(默齋日記)가 말하는 조선인의 질병과 치료』. 역사학연구. 2013:37.

6) 김성수. 『『목재일기』(默齋日記)가 말하는 조선인의 질병과 치료』. 역사학연구. 2013.

7) 김성수. 『16世紀 鄉村醫療實態와 士族의 對應 : 『默齋日記』에 나타난 李文樞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8) 신동원. 『환자를 중심으로 본 의료 2000년 조선의약생활사』. 서울:들녘. 2016.

9) 『默齋日記』 1536년 8월 24일, “氣不平, 以傷寒, 煎服順氣散調治, 不爲甚.”

『默齋日記』 1537년 1월 6일, “斗星傷寒不平.”

10) 『默齋日記』 1555년 10월 7일, “石初一日還自居昌, 得疾胸痛, 四肢不和, 下泄自近日加苦, 今日始有上衝云, 爲之診視, 則脈數甚, 間有不續者, 危甚可慮, 似爲傷寒發熱, 故合小柴胡二服加大黃, 使煎與之, 上氣夕甚云, 令和合丸與服, 又令與月水, 又令與水.”

11) 『默齋日記』 1545년 3월 12일, “聞兵使許碾傷寒而殞云, 可悼也, 其代李夢麟也.”

『默齋日記』 1548년 1월 19일, “柳應壁之兄傷寒云云求藥, 送與蔘蘇飲一服.”

『默齋日記』 1551년 12월 19일, “聞居昌倅柳用恭傷寒化云.”

『默齋日記』 1552년 1월 8일, “公○女夫傷寒云.”

칭하려는 두 가지의 서술이 존재하였다.

두 번째 『목재일기』에서는 傷寒을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한 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성주로 유배를 간 이문건은 꾸준하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변사람들의 소식을 서면을 통해서 알거나 직접 들은 경우가 『목재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 중에서 傷寒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들이 간간히 나타난다. 이는 傷寒이 어느 정도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병임을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이문건은 ‘傷寒發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증상의 위급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목재일기』내에서 傷寒發熱의 기록이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정의 상태가 매우 심하거나¹³⁾ 그 예후가 굉장히 불량하였다(표 1). 『목재일기』에서 傷寒發熱의 단어는 죽음이나 위급사항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목재일기』에서 傷寒으로 죽음을 당한 기록

연도	기사	사인
1545. 3. 12	聞兵使許礪傷寒而殞云, 可悼也, 其代李夢麟也.	傷寒
1552. 1. 19	昏深, 尙孫還自槐山, 妻氏寄諺簡二張, 首陳去月廿九日奇氏迎女婿, 婿郎多精, 忽得傷寒, 犯色發熱, 今月十六日捐世云, 極驚極驚.	傷寒犯色發熱
1553. 1. 22	聞左水使韓洽在鎮病卒, 傷寒發熱云云.	傷寒發熱
1554. 4. 14	但濟叟兄王子英煥得傷寒發熱, 三月十六日捐世云云, 哀悼哀悼	傷寒發熱
1554. 12. 3	申元亮傷寒, 發熱而卒云云.	傷寒發熱
1554. 12. 6	一善府使令公送書, 喻申壯元訃音, 傷寒發熱而卒云云, 必是腎水先絕也, 已日化故知其然.	傷寒發熱

세 번째 『목재일기』에서는 傷寒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을 寒邪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목재일기』 기사 중에서 傷寒에 걸리게 된 이유를 서술한 3개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1555년 11월 16일 歌婆일을 하고 있던 長非라는 여인이 梁山으로 돌아가는 도중 물에 빠져서 傷寒이 되었고, 高靈에서 병이 발작해서 조금 치치를 한 뒤에 尙州에서의 술자리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 양산으로 돌아가는 도중 물에서 빠진 傷寒의 餘證으로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는 기록¹⁴⁾이 있다.

1558년 11월 27일 얇은 옷을 입어서 傷寒이 발병된 것으로 추정되는 孝元이라는 노비는 두통, 언어장애,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이문건은 이충탕과 소시호탕을 합방하여 처방하였다. 하지만 이틀 후인 11월 29일 목재 이문건은 孝元이 傷寒에 걸린 이유가 당시 옷은 새 옷이라서 얇지는 않았으나 물에 빠져서 생긴 것이라고 듣게 되는 기록이 있다.¹⁵⁾

또한 1558년 12월 1일 孝元에게 내린 重傷寒에 대한 연유를 11월 25일 아랫배까지 넘치는 물을 건너고 나서 얻은 得寒症이라는 서술로 나타내고 있다.¹⁶⁾ 이상 3개의 기사 모두 시기적으로 겨울철이며, 둘 다 물에 빠지거나 건넌 후에 생긴 傷寒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게다가 이문건이 스스로에게 내린 진단기록에서도 원인이 寒邪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목재일기』에서 傷寒을 기록한 횟수는 총 32회인데 그 중 겨울철에 사용한 횟수는 총 21회이다. 실제로 傷寒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들이 계절적으로 겨울에 몰려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추운 날씨가 傷寒의 원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목재일기』에서는 傷寒과 感寒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실제 傷寒을 치료할 때 사용한 처방을 感寒에도 사용하기도 하였다. 1535년 12월 2일 이문건은 자신에게 생긴 병을 처음에는 食傷과 感寒이 같이 생긴 것으로 진단하였다가¹⁷⁾ 그 다음날인 3일에는 食傷과 傷寒으로 진단이

12) 『默齋日記』 1536년 9월 21일, “吾氣甚不平, 伴守孫問諸朴僉知, 則傷寒也, 可服參蘇飲云云. 適貞孫到, 朴宅劑送三服持來, 即令煎之”
『默齋日記』 1561년 2월 11일, “牧伯送示族人病証, 証似傷寒, 考方示藥.”
『默齋日記』 1562년 4월 11일, “大丘倅書問女夫傷寒証, 議藥答送.”
13) 『默齋日記』 1545년 윤1월 28일, “頃然金太容來會, 聞泓之傷寒發熱苦極云, 可驚”
『默齋日記』 1547년 1월 8일, “仍聞洪欽仲傷寒發熱危急□□□□言”
『默齋日記』 1555년 10월 7일, “疇石初一日還自居昌, 得疾痛胸, 四肢不和, 下泄自近日加苦, 今日始有上衝云, 爲之診視, 則脉數甚, 間有不續者, 危甚可慮, 似爲傷寒發熱, 故合小柴胡二服加大黃, 使煎與之, 上氣夕甚云, 令和合丸與服, 又令與月水, 又令與水.”
14) 『默齋日記』 1558년 11월 16일, “歌婆長非暮來見曰, 往還朴梁山宅, 溺川傷寒, 到高靈, 病作留調, 昨日乃還, 夜宿姜之家, 午入見牧使求馬云云, 以尙州有還馬事言之, 則喜極矣, 酌酒, 酒後使歌而聽之, 傷寒餘證不平云, 不令久歌, 夜即辭去, 妻氏亦見之, 遺綿子一兩·白木綿廿五尺等物, 蘇見京中人故也.”
15) 『默齋日記』 1558년 11월 29일, “後聞孝元涉水傷寒而已, 衣則新造不薄云云.”
16) 『默齋日記』 1558년 12월 1일, “萬守等還報, 草葬孝元于松坡來云云, 聞卅五日朝涉中牟川, 川深及少腹, 打水輸卜物三四度來往, 得寒証, 燒火熨之, 乃覺胸痞, 行路渴甚飲冷水, 又得頭痛, 苦病, 乃到金山人家, 卅六日大疼, 求菘豆水食之, 目與面皆赤, 轉轉, 卅七日又少食菘豆水, 轉轉, 至暮乃化云云, 必重傷寒而然, 可悼可悼.”
17) 『默齋日記』 1535년 12월 2일, “與輝共守廬. 食傷, 未差感寒, 仍之咳嗽痰逆, 頗不平. 服治中湯·守中金丸等藥, 於証不合必矣. 朝夕哭夕奠, 皆不得參.”

바뀌었고¹⁸⁾ 4, 5, 6일에는 다시 感寒으로 진단을 바꾸면서¹⁹⁾ 感寒과 傷寒에 커다란 차이를 두지 않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1553년 11월 29일 여노비 三月이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이문건은 이를 冷氣腹痛으로 진단해서 습처를 복용시키고 바로 이중탕을 연달아 복용시킨 기사가 존재한다.²⁰⁾ 이뿐만 아니라 치중탕을 1535년 12월 2일 食傷에 겸하여 생긴 感寒의 증상에 사용하였고²¹⁾ 바로 뒤를 이어 1535년 12월 5일 感寒뿐만 아니라 咳嗽·唾膿의 증상에 순기산²²⁾을, 1551년 10월 17일 노성의 感寒의 질병이 그치지 않아 생긴 頭痛, 發熱, 脈數의 증상에 삼소음을 복용시켰다.²³⁾

이처럼 傷寒이 기록된 『목재일기』내의 기사에서 傷寒에 걸린 이유가 찬 기운에 의했다는 환자들의 진술, 계절적 배경이 대부분 겨울이라는 부분 그리고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冷氣, 感寒을 傷寒과 병용해서 활용된 것으로 보아 『목재일기』에서는 傷寒을 일으키는 병인을 寒邪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목재 이문건은 傷寒을 치료함에 있어서 여러 의서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문건이 傷寒을 치료할 때 쓴 처방은 매우 다양한데, 우선 『상한론』에 서술되어 있는 소시호탕(가감방)²⁴⁾과 이중탕²⁵⁾을 활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목재 이문건은 치중탕²⁶⁾, 순기산²⁷⁾, 삼소음²⁸⁾과 같은 그 원류가 『類證活人書』나 『太平惠民和劑方』과 같은 『상한론』이 아닌 서적인 처방도 활용하였다.

심지어 이문건은 傷寒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치료할 때 단순히 처방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

하였다. 이문건은 1555년 10월 7일 芻石의 傷寒發熱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자 탕약으로는 소시호가대황탕을 먼저 사용하고 추가적인 방법으로 月水와 얼음을 함께 복용시켰다.²⁹⁾ 또 1556년 1월 28일 이문건의 지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傷寒發熱로 인한 치료법을 묻자, 이문건은 野乾水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다.³⁰⁾ 아무래도 두 가지 용례 모두 급하게 올라간 發熱증상을 빨리 내리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이문건은 傷寒이라는 병을 치료할 때 傷寒의 대표적인 의서로 취급되는 『상한론』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의서에 걸쳐서 두루두루 처방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부차적인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단순히 처방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방법들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2. 『상한론』에 대한 『목재일기』속의 관점

먼저, 『목재일기』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병증이 『상한론』에서 설명하는 병증과 유사할 경우 이문건은 『상한론』의 처방들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소시호탕은 본래 『상한론』에서 少陽經病證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널리 사용하였다(표 2).

- 18) 『默齋日記』 1535년 12월 3일 “與輝共守廬. 食傷·傷寒證並侵, 甚不平, 不得參芩. 朝服治中湯, 而止守中金丸. 且令箕星, 解說前讀, 則全不全, 怒極撻其背, 遂改習前讀焉. 輝察其目, 以謂夜復泄精也, 問之則不得諱, 茲欲嚴禁, 披其衾, 令話之以辱焉.”
- 19) 『默齋日記』 1535년 12월 4일, “與輝共守廬. 感寒·咳嗽甚苦, 不服前藥, 無當藥, 不能服治之. 芩不得與焉.”
『默齋日記』 1535년 12월 5일, “與輝共守廬. 吾氣弱, 感寒·咳嗽·唾膿, 甚苦, 小食焉. 脚冷且痺, 其苦亦甚, 盡廢芩不得參.”
『默齋日記』 1535년 12월 6일, “與輝共守廬. 吾感寒證不差煩困, 不得參芩芩焉. 朝服人參順氣散, 汗氣微發. 去夜心煩不得睡, 徹曉不交睫, 尤困憊焉.”
- 20) 『默齋日記』 1553년 11월 29일, “婢三月冷氣腹痛, 先與合丸三介和童溺者, 繼與理中湯服之, 猶不止云云.”
- 21) 『默齋日記』 1535년 12월 2일, “與輝共守廬. 食傷, 未差感寒, 仍之咳嗽痰逆, 頗不平. 服治中湯·守中金丸等藥, 於証不合必矣. 朝夕芩芩, 皆不得參.”
- 22) 『默齋日記』 1535년 12월 5일, “與輝共守廬. 吾氣弱, 感寒·咳嗽·唾膿, 甚苦, 小食焉. 脚冷且痺, 其苦亦甚, 盡廢芩不得參.”
『默齋日記』 1535년 12월 6일, “與輝共守廬. 吾感寒證不差煩困, 不得參芩芩焉. 朝服人參順氣散, 汗氣微發. 去夜心煩不得睡, 徹曉不交睫, 尤困憊焉.”
- 23) 『默齋日記』 1551년 10월 17일, “老成感寒之疾不止, 頭痛發熱脈數, 曉復合參蘇飲煎與服之, 朝稍解, 午復作熱頭痛, 全不食食, 只思食冷物云, 與服參蘇飲則嘔之, 暮又與服參蘇飲及清心元半半丸, 復少吐, 頭裹痛云.”
- 24) 『默齋日記』 1553년 1월 21일, “昨日妓儀之來求治熱藥, 與小柴胡湯一服加大黃者, 其母傷寒發熱云云.”
- 25) 『默齋日記』 1558년 11월 27일, “金山居兒來報, 槐山來奴孝元, 薄衣傷寒頭痛, 不得言語, 上下吐瀉, 昨昨入吾窩, 苦極云云, 乃婢溫今義母家兒也, 驚恰其凍傷如此, 乃合理中湯一服·小柴胡湯二服, 預付萬守, 使明日往見, 深恨禧母氏不治衣, 使冒寒至此極也耳.”
- 26) 『默齋日記』 1535년 12월 3일 “與輝共守廬. 食傷·傷寒證並侵, 甚不平, 不得參芩. 朝服治中湯, 而止守中金丸. 且令箕星, 解說前讀, 則全不全, 怒極撻其背, 遂改習前讀焉. 輝察其目, 以謂夜復泄精也, 問之則不得諱, 茲欲嚴禁, 披其衾, 令話之以辱焉.”
- 27) 『默齋日記』 1536년 8월 24일, “氣不平, 以傷寒, 煎服順氣散調治, 不爲甚.”
- 28) 『默齋日記』 1536년 7월 29일, “留京. 早投朴僉知家, 問妻證, 傷寒也, 可與參蘇飲云云.”
『默齋日記』 1548년 1월 19일, “柳應壺之兄傷寒云云求藥, 送與參蘇飲一服.”
- 29) 『默齋日記』 1555년 10월 7일, “芻石初一日還自居昌, 得疾痛胸, 四肢不和, 下泄自近日加苦, 今日始有上衝云, 爲之診視, 則脈數甚, 間有不續者, 危甚可慮, 似爲傷寒發熱, 故合小柴胡二服加大黃, 使煎與之, 上氣夕甚云, 令合丸與服, 又令與月水, 又令與水.”
- 30) 『默齋日記』 1556년 1월 28일, “李敏樹之子拳來問妻病, 傷寒發熱云, 喻用野乾水.”

표 2. 『상한론』내의 소시호탕 용례

傷寒 五六日 中風 往來寒熱 胸脇苦滿 嘔嘔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脇下痞硬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咳者 小柴胡湯主之
血弱氣盡 腠理開 邪氣因入 與正氣相搏 結於脇下 正邪分爭 往來寒熱 休作有時 嘔嘔不欲飲食 臟腑相連 其痛必下 邪高痛下 故使嘔也 小柴胡湯主之
得病六七日 脈遲浮弱 惡風寒 手足溫 醫二三下之 不能食而脇下滿痛 面目及身黃 頸項強 小便難者 與柴胡湯
傷寒中風 有柴胡證 但見一證 便是 不必悉具 凡柴胡湯病證而下之 若柴胡證不罷者 復與柴胡湯 必蒸蒸而振 却復發熱 汗出而解
太陽病 過經十餘日 反二三下之 後四五日 柴胡證仍在者 先與小柴胡
婦人中風七八日 續得寒熱 發作有時 經水適斷者 此為熱入血室 氣血必結 故使如瘧狀 發作有時 小柴胡湯主之
傷寒五六日 嘔而發熱者 柴胡湯證具 而以他藥下之 柴胡證仍在者 復與柴胡湯
少陽之為病 口苦咽乾 目眩也
太陽病 不解 轉入少陽者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寒熱 尚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傷寒差以後 更發熱者 小柴胡湯主之

『상한론』에서는 소시호탕을 인체의 半表半裏에 사기가 존재할 경우 나타나는 제반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으로 인식하고 있다.³¹⁾ 그리고 『상한론』에서는 ‘1개 이상의 시호증이 있다면 소시호탕을 사용할 수 있으니 굳이 조문의 모든 증상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³²⁾ 이렇게 소시호탕을 사용하는 『상한론』의 모습들은 『목재일기』에서 소시호탕을 사용한 상황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목재일기』에서 소시호탕을 사용한 경우들을 모두 모아본 결과, 『상한론』의 시호증으로 인식하고 있는 증상을 환자가 호소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표 3).

표 3과 같이 『목재일기』에서는 소시호탕을 활용할 때, 『상한론』에서 서술하는 소시호탕의 용례들과 부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재일기』에서 소시호탕을 사용하는 장면들은 이증탕의 용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래 이증탕은 『상한론』에서는 정식명칭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이증환을 탕약의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그 원류는 『상한론』에 근거한 것으로 취급한다.³³⁾ 『상한론』에서는 이증탕을 대표적인 傷寒太陰證의 처방으로 사용하였는데 『목재일기』에서도 『상한론』과 유사하게 상한태음증으로 간주되는 환자에게 이증탕을 달여 주는 기사들이 존재한다.

표 3. 『默齋日記』 소시호탕 용례

『默齋日記』의 소시호탕 용례	『상한론』 소시호탕 용례와의 유사점
1551년 3월 3일 韓玠來問, 父有寒熱證, 示可藥云, 議用小柴胡湯	寒熱證
1551년 4월 17일 見巨公診其脈, 則不數而虛, 猶言口苦云, 慮有餘熱, 與小柴胡湯半服.	口苦
1553년 6월 5일 淑禧夜熱甚, 昏復寒熱交作如瘧, 以五苓散小柴胡合煎與之.	昏復寒熱交作如瘧
1554년 8월 22일 下見天澤, 熱氣內蓄, 口苦不思食飲云云, 曉服小柴胡湯, 昏令服補中益氣湯.	口苦不思食飲
1555년 2월 25일 天澤熱証不減, 汗氣絕無, 粥飲不入口, 萬物亦不得優飲, 至可悶也, 姑以小柴胡與服.	熱証不減, 粥飲不入口
1556년 12월 15일 呂岩書問母氏熱証至再, 已用小柴胡云云.	熱証至再
1556년 12월 21일 李彭祖寒熱証, 問藥, 喻用小柴胡湯	寒熱証
1562년 1월 28일 妻氏早出廁, 傷寒吐痰, 入臥不食食, 振寒發熱, 解衣坐席苦吟, 復吐痰, 自言愛丁之魂來虐, 故如是, 目見之則對坐云云, 以小柴胡煎水, 調龍蘇三丸, 與服之, 又令婢億今備飯酒禱之, 則若鬼降之狀, 搖頭揮手, 諱言不止, 可厭也, 置米升于其前, 人爭舉之, 若有物壓云云, 惑也, 令淑禧承護, 還堂臥調, 頭痛不止焉.	傷寒吐痰, 入臥不食食, 振寒發熱
1562년 1월 29일 妻氏熱候不解, 不食臥吟, 復煎小柴胡湯, 早服此藥少許, 大便二度不祕云, 疑不可過用冷藥.	熱候不解, 不食臥吟
1562년 2월 1일 下見內候, 則言之烝乏, 又有咳而痰粘不出小水黃, 汗不洽出, 渴不思食, 脈至不均, 遲數無定, 代止極多, 以言其証, 則危甚矣, 午以小柴胡湯和清心一丸進服之, 久而飲苡水少許, 夕復怏煩求藥, 用香蘇散加黃芩·枳·柴胡升麻, 煎之, 和清心半丸, 進服之, 中滿不思飲食, 精神則不昏矣, 欲鎮安其心, 貼朱符于房壁.	渴不思食
1562년 4월 14일 大丘人夜來受答, 買小柴胡湯持去, 病郎之熱作止, 急甚云云.	病郎之熱作止, 急甚

31) 류두저우, 정창현, 김혜일 역. 『劉渡舟 傷寒論 講義』, 물고기술. 2014:199-200.

32) 『傷寒論』, “傷寒中風 有柴胡證 但見一證 便是 不必悉具”

33) 江克明, 包明蕙. 『簡明方劑辭典』, 上海科学技术出版社. 1989:958.

표 4. 『목재일기』 이중탕 용례 중 나타난 태음증

太陰病 提綱：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若下之 必胸下結硬	
『목재일기』의 이중탕 용례	『상한론』과 유사점
1536년 9월 29일 留京家, 腹痛加作, 午服溫白元四丸, 注下三度, 氣甚惡. 朝服理中湯無效.	腹痛加作 注下三度
1546년 8월 20일 居同家, 午前五度瀉, 午後至夜亦多瀉, 厭食困乏, 曉亦服理中湯焉.	午前五度瀉 午後至夜亦多瀉 厭食困乏
1551년 12월 2일 以造理中湯煎之, 使明朝與老成, 老成所食不化下, 全不思食可慮.	食不化下, 全不思食可慮.
1552년 12월 24일 夫人夜一泄下云 / 夫人早畢服八物湯, 更煎理中湯加良干縮砂者下送, 令昏曉兩服之.	夜一泄下
1556년 2월 20일 洪述之隨行, □其□□邀入, 以泄下証不平辭之, 乃直還州, 見兒輩于下家, 卽上堂, 搜理中湯令煎之, 因臥以休	泄下証不平

표 4와 같이 『목재일기』에서 이중탕을 사용한 예를 보면 傷寒태음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복통, 설사, 食不下的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에 이를 활용하였다. 즉 이중탕 역시 소시호탕의 용례와 비슷하게 『상한론』에서 서술하는 이중탕의 용례들과 부합된 상황에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목재일기』에서 『상한론』의 영향을 받아서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들은 처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목재 이문건은 처방들을 사용할 때 원방뿐만 아니라 약재들을 몇몇 가감해서 사용하였는데, 가감목적의 부분에서도 『상한론』의 영향을 받은 장면들이 존재한다.

본래 『상한론』에서는 마황을 傷寒이지만 無汗한 환자에게 發汗을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상한론』의 취지와 일치하게 목재 이문건 역시 發汗을 목적으로 마황을 가감한 기사가 2차례 존재한다. 1553년 7월 28일 李景明이 이문건을 찾아와 자신의 어머니가 학질을 앓고 나서 두통, 無汗의 증상을 호소하자 이문건은 삼소음에 마황을 가해서 주었고 그 끝에 ‘以發汗’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감의 의미를 기록하였다.³⁴⁾ 두 번째, 1555년 4월 23일 天澤이 소시호탕, 청심환, 지보단을 복용하고 나서도 땀을 흘릴 기색이

보이지 않자 이문건은 삼소음에 마황 측사 궁궁을 가감한 탕약을 먹였다.³⁵⁾

이와 같이 『목재일기』 내에서 나타나는 『상한론』의 인식을 연구해본 결과 환자가 『상한론』에 서술되어 있는 증상들이 환자의 증상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상한론』에 의거해서 처방을 내리고 치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發汗을 목표로 약재를 가감을 해야 할 때, 마황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상한론』이 이문건의 치료적 배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목재일기』에서는 『상한론』의 용례들을 참고해 환자의 상황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로써 『상한론』 처방들을 사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白虎湯과 白虎可人參湯(人參白虎湯)이다. 표 5와 같이 『상한론』에서는 백호탕과 백호가인삼탕을 양명병의 범주에서 사용하였다.

표 5. 『상한론』내에서의 백호탕과 백호가인삼탕의 용례

백호탕
傷寒 脈浮滑 此以表有熱 裏有寒 三陽合病 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 面垢 讕語遺尿 發汗則讕語 下之則額上生汗 手足逆冷 若自汗出者
傷寒 脈滑而厥者 裡有熱
백호가인삼탕
服桂枝湯 大汗出後 大煩渴不解 脈洪大者 傷寒 若吐若下後 七八日不解 熱結在裏 表裏俱熱 時時惡風 大渴 舌上乾燥而煩 欲飲水數升者 傷寒 無大熱 口燥渴 心煩 背微惡寒者 傷寒 脈浮 發熱 無汗 其表不解 不可與白虎湯 渴欲飲水 無表證者 若渴欲飲水 口乾舌燥者

이렇게 『상한론』에서 양명병의 범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처방을 陽明病이 아닌 暑病을 치료할 때 활용하였다.

이문건은 1553년 5월 29일부터 발생한 淑禧의 暑病³⁶⁾을 고치기 위해서 6월 1일 四君子湯에 향유 죽엽 맥문동을 가한 처방을 달여서 먹었고³⁷⁾, 6월 3일 서열이 다시 올라와서 백호탕을 내려서 복용시켰다.³⁸⁾ 이뿐만이 아니라 1555년 7월 5일부터 있었던 吉兒의 한열왕래증상과 이하선염의 증상을 학질로 진단하였는데 4일 후인 7월 9일³⁹⁾에 서병이 같이

34) 『默齋日記』 1553년 7월 28일, “李景明來見言, 母氏瘧後頭痛無汗云, 議用參蘇飲加麻黃, 以發汗.”

35) 『默齋日記』 1555년 4월 23일, “天澤夜服小柴胡數鍾子, 每以清心半丸·至寶丹一丸嚼下云, 甚無汗氣, 故乃煎參蘇飲加麻黃·縮砂·芎藭者與服之, 分二度與之, 每和清心元半丸, 到夕熱氣尤盛, 恨妄用不合之劑爾, 不得已取水, 與啗之, 又煎小柴胡湯加大黃者, 令夜服之, 又取人屎三塊·猪屎三介浸水儲備之.”

36) 『默齋日記』 1553년 5월 29일, “淑禧亦得暑証, 嘔食不平, 使浴藜湯.”

37) 『默齋日記』 1553년 6월 1일, “淑禧身熱吐泄, 不能食, 煎四君子湯加香薷·竹葉·麥門冬者, 與之.”

38) 『默齋日記』 1553년 6월 3일, “淑禧暑熱復作, 爲合白虎湯半服, 煎與之.”

39) 『默齋日記』 1555년 7월 9일, “合人參白虎湯, 欲與吉兒治暑也, 五苓煎水, 與至令服之, 使之出乳與兒.”

오자 이문건은 인삼백호탕을 달여서 서병을 고치고자 하였다. 일기에 인삼백호탕 뒤에 ‘欲與吉兒治暑’라는 글귀를 통해서 이문건이 인삼백호탕을 사용한 의도가 서병을 다스리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상한론』에서는 이문건이 처방을 활용한 사례와 같이 백호탕이나 백호가인삼탕을 暑病에 활용하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문건은 暑病의 發熱양상과 渴欲飲水한다는 점이 백호탕과 백호가인삼탕의 『상한론』 용례와 비슷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이를 활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백호탕과 백호가인삼탕처럼 『상한론』의 용례와 비슷한 증상에 『상한론』의 처방을 활용한 예가 하나 더 존재한다. 바로 이증탕을 이질병에 활용한 점이다. 앞의 기술에서는 『목재일기』에서의 이증탕은 전형적인 傷寒太陰證인 腹痛 泄瀉 食慾不振에 사용되는 모습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문건은 傷寒太陰證 뿐만 아니라 痢疾에도 이증탕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1551년 7월 28일에 李熙明이 이질병에 걸렸다고 그의 조카가 이문건을 찾아와서 약을 구하는 상황에서 이문건은 조카에게 소감원과 더불어서 이증탕가창출을 복용시킬 것을 가르쳐주었다.⁴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질에 이증탕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1552년 4월 9일 이문건 스스로에게 생겼던 이질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이증탕을 사용했다.⁴¹⁾ 이틀 전인 4월 7일 이문건은 4월 4일에 받은 빙정과에 있었던 독으로 복통, 설사가 계속 나온다고 하였고⁴²⁾ 이에 4월 9일 이문건이 표현한 복통과 설사 불사음식의 증상은 寒太陰證이라기 보다는 빙정과에 있었던 독으로 인한 설사병(痢疾)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증탕을 활용한 예시 역시 백호탕과 유사하게 傷寒太陰證의 증상들이 이질의 일반적인 증상과 비슷해서 이증탕을 이질병에 활용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백호탕과 이증탕등의 『목재일기』내의 활용예시를 보면 앞의 논술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상한론』을 임상에 적용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즉 『상한론』의 글자에 구태여 얽매이지 않고 이문건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상한론』적인 지식이 그 외의 질병과 일치하는 증상이 존재한다면 『상한론』의 처방을 다른 질병에도 충분히 활용해보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Ⅲ. 결론

먼저 『목재일기』내에서 傷寒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傷寒이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었다. 우선 『목재일기』에서 傷寒이라는 단어는 증상에 대한 서술로써의 의미뿐만 아니라 최종진단을 내리는 하나의 진단명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상에 대한 서술로써 傷寒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여러 부차적인 증상들이 傷寒과 함께 같이 서술되어 있었고, 병명진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차적인 증상에 대한 서술 없이 傷寒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였다.

『목재일기』에서 傷寒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기사들의 반 이상이 傷寒으로 인해 죽었다는 기록인 것으로 보아 傷寒이 목숨을 위협하게 하는 매우 위급하고 위험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傷寒發熱이 사용된 기사들에서 나타나는 병정들은 굉장히 위급하거나 그 이후 또한 죽음을 당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 이는 이문건이 『목재일기』를 기록할 때, 傷寒發熱을 쓴 경우에는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추측할 수 있다.

『목재일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傷寒의 양상을 종합해본 결과 그 원인이 寒邪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목재일기』에서 傷寒이 기록된 경우는 대부분 추운 겨울날씨였을 뿐만 아니라 몇몇 傷寒病 환자들이 언급하는 그 원인 역시 추운 겨울 날씨 중에 강물을 건너서 생긴 경우였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문건이 질병을 판단함에 있어서 感寒과 傷寒을 혼용했다는 점과 冷氣를 腹痛의 원인으로 지적했다는 점 역시 傷寒을 일으키는 병인이 寒邪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기사들에 기록되어 있는 傷寒을 치료할 때 목재 이문건은 여러 가지 의서들을 참고해서 傷寒을 치료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문건은 傷寒과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인 서적인 『상한론』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처방들을 사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문건은 『유증활인서』나 『태평혜민화제국방』⁴³⁾과 같이 『상한론』이 아닌 서적에 기원을 두고 있는 처방들도 꺼리낌 없이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傷寒을 치료할 때 단순히 처방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발열과 같은

40) 『默齋日記』 1551년 7월 28일, “李熙明得痢云, 其族下來求藥, 以蘇感元與之, 又喻服理中湯加蒼朮者.”

41) 『默齋日記』 1552년 4월 9일, “留堂, 服理中湯, 腹痛而泄猶不止, 食不甘.”

42) 『默齋日記』 1552년 4월 7일, “留堂服藥未, 轉有腹痛下泄之証, 必因初四日於校亭啗水正果之毒也.”

43) 특히 『태평혜민화제국방』은 이문건이 스스로 소유하고 있었고 傷寒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영향을 끼쳤음을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목재일기』 1551년 1월 7일, “柳景深得風病云, 借和劑傷寒付卷去.”

부차적인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月水, 水, 野乾水 등의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재일기』에서 『상한론』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을 분석해보기 위해 연구한 결과 傷寒이라 직접 진단을 내린 경우 외에도 『상한론』에서 서술하고 있는 증상들이 환자들이 호소하는 경우에 목재 이문건은 『상한론』에 기술되어 있는 처방들을 사용하였다. 소시호탕의 경우 『상한론』에서 서술하고 있는 상한소양증이 환자에게 나타난 경우 여지없이 사용하는 기사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증탕의 용례 역시 상한태음증에 해당하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문건이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상한론』에 의거해서 이문건이 의료행위를 한 모습은 처방뿐만 아니라 가감례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목재일기』 기록에서 麻黃 가감의 이유가 땀을 내기 위해서 사용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목재일기』에서는 『상한론』에만 국한해서 처방을 사용하지 않는 면모도 보여주고 있었다. 목재 이문건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상한론』에서 서술하고 있는 증상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한론』의 처방을 활용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우선, 이문건은 口渴과 身熱이 주증상인 暑病에 백호탕과 백호가인삼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상한론』에서 두 개의 탕에 대한 병증이 暑病과 유사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문건은 痢疾을 치료할 때도 이증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痢疾의 증상이 傷寒太陰證과 유사하다는 점을 착안해서 해당 처방을 활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IV. 고찰

본고는 『목재일기』를 통해 15C 의서인 『의방유취』와 17C 저서인 『동의보감』사이의 傷寒 및 『상한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시기적으로 이 두 의서의 사이에 쓰인 『목재일기』에서 나타나는 傷寒에 대한 여러 기록들은 『의방유취』에서 『동의보감』으로 상한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추정케 하였다. 이는 傷寒과 寒邪

를 구분하려던 『의방유취』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 둘을 통합해서 보려는 『동의보감』의 관점으로 이행되는 중간지점으로 여겨진다. 『목재일기』내에 보이는 傷寒은 발병 시기, 원인, 진단들이 寒邪와 관련성이 굉장히 높았다. 때문에 목재 이문건은 이들을 치료할 때 『상한론』에만 얽매이지 않고 여러 의서들을 참고해서 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동의보감』에서 傷寒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장면들도 『목재일기』내에서 조금 존재한다. 『목재일기』에서는 傷寒을 최종적인 진단명으로 사용한 기록들이 있고 이문건은 傷寒發熱과 같은 특수한 증상이 환자에게서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 병정이 굉장히 위급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傷寒을 寒邪로 완전히 통합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병명으로 취급하려던 모습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 『목재일기』에서 나타나는 『상한론』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 때 존재하던 『상한론』에 대한 인식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조선에서는 『상한론』 원서, 이와 관련된 주석서 또는 전문서적을 편찬한 기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⁴⁴⁾ 이처럼 『상한론』에 대한 조선에서의 관심이 미진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상한론』에 수록되어 있는 처방들을 사용하기 힘든 당시 조선의 실정을 들 수 있다. 조선에서는 『상한론』 처방에 필수적인 마황, 계지, 감초를 직접 생산하지 못하였기에 조선 전기 『鄉藥集成方』에도 『상한론』에 수록된 처방들을 많이 수록하지 않았다.⁴⁵⁾ 즉 이러한 당시의 흐름에 맞춰 목재 이문건도 『상한론』 자체를 연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⁴⁶⁾

한편, 이문건이 『상한론』의 처방들을 활용한 모습들은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송나라의 교정 의서국을 통해서 『상한론』이 출판되고 나서 비단 傷寒학과 뿐만 아니라 여러 학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는데 이들은 『상한론』에 나온 치법이나 처방들을 火熱病, 攻下法, 內傷發熱, 陽有餘陰不足과 같은 여러 병리적인 현상에 활용하였다.⁴⁷⁾ 게다가 傷寒학파들도 역시 『상한론』을 폭넓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방안시는 『상한론』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인 부인과 소아의 傷寒에 대해서 직접 보충하였고 傷寒病과 溫熱病을 구분은 하되 溫熱病에도 『상한

44) 오준호. 「양감상한(兩感傷寒)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의가들의 상한 인식」. 한국의사학회지. 2012;21(1):1-2.

45) 오준호. 「양감상한(兩感傷寒)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의가들의 상한 인식」. 한국의사학회지. 2012;21(1):2.

46) 『목재일기』 내의 기록에서도 『상한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태평혜민화제국방』과 같은 상한 관련 서적으로 지식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47) 殷鍾元. 「『傷寒論』이 後世醫學에 미친 影響에 對한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75-77.

론』의 처방을 가감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⁴⁸⁾ 즉 『상한론』의 처방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하는 움직임은 중국에서도 나타난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문건은 방안시와 같은 몇몇의 傷寒학파들이 傷寒이라는 단어를 고수하였던 것과 달리 傷寒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였으나 六氣의 寒邪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모습들이 보인다. 이는 『의방유취』가 六氣로써의 한사와 상한을 구분하고자하는 모습 보다는 寒에 傷寒을 포함시킨 『동의보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비록 傷寒이라는 병이 여전히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병일수도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였으나 六氣로써의 寒邪와 혼용해서 傷寒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목재일기』에서 나타나는 傷寒에 대한 관점은 六氣로써의 寒邪와 구분하려던 의방유취와 같은 傷寒에 대한 인식이 六氣로써의 寒邪로 傷寒을 설명하려고 했던 동의보감의 傷寒에 대한 인식으로 넘어가는 중간과정을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7R1C1B5077167).”

참고문헌

1. 江克明, 包明蕙. 『簡明方劑辭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2. 顧武軍, 張民慶 主編.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용재, 문준전 외 共編譯. 『現代傷寒論』. 서울:한의학문화사. 2008.
3. 신동원. 『환자를 중심으로 본 의료 2000년 조선의약생활사』. 서울:들녘. 2016.
4. 嚴世芸 著. 김달호, 김중환, 김훈, 이상협, 이해웅 옮김. 『中醫基礎理論系列叢書 國譯 中醫學術史』. 서울:대성의학사. 2011.
5. 劉渡舟. 정창현, 김혜일 역. 『劉渡舟 傷寒論 講義』. 서울:

물고기숲. 2014.

6. 陳大舜, 曾勇, 黃政德 著. 맹용재, 박현국, 박경남, 김남일, 신영일, 김용진 외 옮김. 『各家學說 中國篇』. 서울:대성의학사. 2004.
7. 김경숙. 「조선시대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 역사연구. 1998;55(56):369-394.
8. 김성수. 「16世紀 鄉村醫療實態와 士族의 對應 : 『默齋日記』에 나타난 李文樾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9. 김성수. 「16세기 중반 지방 사족의 의료활동 - 경상북도 성주의 이문건 사례 -」.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07; 13(2):15-25.
10. 김성수. 「『목재일기』(默齋日記)가 말하는 조선인의 질병과 치료」. 역사연구. 2013;(24):35-53.
11. 민정희. 「16世紀 星州地域 兩班家의 巫俗信仰 研究 : 『默齋日記』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12. 변정욱. 「『醫方類聚』 傷寒門의 구성 체계와 내용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13. 신규수. 「朝鮮時代 流配刑罰의 性格」. 한국문화연구. 2012; 23:137-169.
14. 심범상. 「『傷寒論』에서 發熱의 病理에 관한 文獻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5. 오준호. 「양감상한(兩感傷寒)을 통해 본 조선 후기의 가들의 상한 인식」. 한국의사학회지. 2012;21(1):1-23.
16. 殷鍾元. 「『傷寒論』이 後世醫學에 미친 影響에 對한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17. 이경록. 「조선전기 『의방유취』의 성취와 한계: 상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012;34(3):461-493.
18. 李尙原, 車雄碩, 金南一. 「東醫寶鑑의 傷寒에 대한 認識 : 六經形證用藥을 中心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3;16(2):71-104.
19. 이상원. 「東醫寶鑑의 傷寒에 대한 認識」.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20. 이해정.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21. 張星德. 「默齋 李文樾의 流配時期 交遊樣相」.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22. 丁海鎭. 「『傷寒總病論』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48) 丁海鎭. 「『傷寒總病論』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261, 271.

23. 이문건(1494~1567). “묵재일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79&itemId=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37&levelId=sa_076> (2019.04.20.)